

朝鮮朝 明宗의 學術活動과 書籍文化에 관한 考察*

A Study on Academic Activities and Bibliographic Culture during King Myeongjong Period in Joseon Dynasty

김 윤 식 (Kim, Yoon-Sik)**

◁ 목 차 ▷

- | | |
|---------------------|-------------------|
| 1. 緒言 | 3.2 明宗의 文興政策 |
| 2. 明宗朝 書籍文化의 時代的 背景 | 4. 明宗朝의 圖書編撰 및 刊行 |
| 2.1 政治社會的 背景 | 4.1 圖書의 編撰 |
| 2.2 前王代의 圖書編撰과 刊行狀況 | 4.2 圖書의 刊行 |
| 3. 明宗의 學問活動과 文興政策 | 5. 結言 |
| 3.1 明宗의 學問活動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명종조의 서적문화와 관련하여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명종의 학문활동 및 문흥진흥책 그리고 도서 편찬과 간행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종조의 서적 문화의 배경으로서 정치사회적 상황은 乙巳土禍와 良才驛 壁書事件으로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하였고, 林巨正의 亂, 乙卯倭變 등 내우외환이 심했으므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2. 명종의 학문 활동은 경연을 통하여 재위 전반은 열의를 보였으나 호학적 성품이 아니었으므로 점차 관심이 없어져 학덕과 군덕함양에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명종의 성품과 학문활동은 직접적으로 서적문화의 발전을 주도하기에는 미흡하였다.

3. 명종의 관학 진흥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사학진흥을 위해 사액서원을 제도화하여 사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로서 도서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었을 것으로 본다.

4. 명종조의 도서편찬은 왕의 소극적인 학문활동과 관련하여 저조한 편이었으나 도서간행은 활자 주조 및 개조로 인쇄사업이 활성화되었던 중종조에 영향을 받아 활발한 편이었다.

要語: 조선, 중종, 서적문화

* 이 논문은 2010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skim@dongduk.ac.kr)

접수일: 2012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The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how the book publishing and printing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and academic activity of King Myeongjong in Joseon Dynasr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during King Myeongjong, includes many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such as 'Eulsa Sahwa(乙巳土禍)', 'Yangjae Beyeokseo case(良才驛壁書事件)', 'rebel of Lim Ggeok-jeong(林巨正의 亂)' and 'Eulmyo Japanese Invasion(乙卯倭變)', was negative factors to the development of the book culture.

2. King Myeongjong did not have love of learning in his nature. Therefore he gradually became less interested in academic activities with royal scholars. Accordingly, his characters and academic activities were not influential enough to directly lead the development of academic and bibliographic climate.

3. King Myeongjong's public academic promotion policies had not been effective, but he institutionalized the private schools(Seowon) to promote private academies, which can be highly considered because it laid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academy development and seemed to influence on more book publication.

4. The book compilations were rather poor due to the King Myeongjong's passive academic activities, while the local book publications were active, being influenced by the previous King Jungjong Period when the printing business was active due to the developed type casts and print improvements.

Key words: Joseon, King Myeongjong, Bibliographic culture

1. 緒 言

조선 전기의 세종과 성종, 후기의 영조와 정조시대의 서적의 편찬과 간행 등을 포함한 학술 문화에 관한 연구는 많이 행해져 있어 다른 왕대와 비교하여 괄목한 업적을 남겨놓은 시대로 밝혀져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사유는 당대의 정치 사회적 안정된 배경하에 호문적 성품을 지닌 왕이 주도한 문흥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반대로 연산군대는 정치 사회의 혼란과 왕의 학문 활동과 문흥에 대한 무관심 등이 서적문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그 결과는 매우 저조하였음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명종대의 서적문화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명종대에 있어서 도서 편찬과 간행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 서인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서적문화의 발전이 盛했던 衰했던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정치 사회적 배경과 왕의 학문적 성품과 학문활동 및 문흥 정책과의 관계를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명종조의 연구는 조선시대 서적문화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먼저 명종대의 서적문화와의 배경으로서 당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전 왕대의 서적문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명종의 학술활동과 문흥정책은 어떠하였는지 그 사정을 밝혀본 후 당대의 도서의 편찬과 간행 상황을 밝혀서 그 상호 관련성이 어떠한지를 명종실록을 포함한 관련 참고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明宗朝 書籍文化의 時代的 背景

서언에서 언급 했듯이 서적문화의 발전 여부는 그 시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왕의 학문에 대한 관심과 진흥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적으로 당시

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前 王代의 도서편찬과 간행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政治社會的 背景

明宗은 이복형인 仁宗이 즉위하여 1년도 안되어 세상을 떠남으로서 전격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 12살 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로 모후인 文定王后가 수렴청정으로 시작하였으므로 당연히 왕권은 미약하고 모후와 그 척신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것이다.

즉위년부터 권력 다툼이 乙巳士禍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연산군시대의 무오, 갑자사화 중종조에 기묘사화에 이어 또 한 번의 정치적인 투쟁으로 적지 않은 선비들이 수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 을사사화는 중종의 비인 인종의 모후인 章敬王后와 명종의 모후인 文定王后의 두 외척 가문간의 권력 다툼이었다. 양가는 중종 말기부터 세자(인종)의 외숙인 尹任을 중심으로 하는 大尹 일파와 慶源大君(후에 명종)의 외숙인 尹元老·尹元衡을 중심으로 한 小尹 일파 사이의 세력 다툼이 계속되다가 인종이 즉위함으로써 대운의 득세로 일단락되었으나, 인종이 별세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역으로 대운은 실세하고 소윤이 득세하게 된다. 사화는 당시 외척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이 누나인 문정왕후와 합세하여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운 세력을 숙청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임, 유관, 유인숙을 비롯한 대신들 이외에도 관련된 많은 士林계열의 인물들까지도 희생되어 국가의 문흥에 일조해야 할 인재들이 사라진 것이다.

대운세력이 몰락한 이후에는 소윤의 핵심인 윤원로와 윤원형의 친 형제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그 결과 형인 윤원로가 사사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사회와 계속되는 권력 다툼으로 정국이 불안한 속에서 또다시 명종 2년(1547) 9월 문정왕후를 비방하는 良才驛 壁書事件¹⁾으로 을사사화 피화인에

1) 『明宗實錄』 권6, 2년 9월 丙寅.

게 재차 형을 가하는 조치가 있었다. 그 결과 윤임의 인척이 되는 宋麟壽와 李若水은 賜死되고 李彥迪 등 20여명의 문사들이 유배를 당하였다.²⁾

이러한 벽서사건의 결과는 윤원형 세력의 권세는 더욱 커지고, 그들에 아첨하는 간신배들이 활개를 치게 됨으로써 정치는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으니 학술 문화적 활동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었다.

유배를 당한 인사 중 眉巖 柳希春은 후에 復權되어 선조의 스승이 되었으며 그에게 배웠던 선조는 항상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은 회춘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³⁾고 하였다니 그의 학덕이 얼마나 출중하였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어 일찍이 명종의 중신으로 등용되지 못하고 화를 당한 것이 불행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이언적은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求仁錄』, 『大學章句補遺』, 『中庸九經衍義』, 『奉先雜儀』 등의 중요한 저술을 남겼으며, 그 외 유배자들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문집을 남겨 놓을 만큼 학문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들이 화를 당하지 않고 관료로서 등용되어 활동하였다면 명종조 문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사화 후 명종은 윤원형 중심의 척신정치에 대응하고자 반척신의 정치세력을 양성하면서 적지 않은 반격을 시도해 보지만 문정왕후가 살아 있는 동안은 정치의 개혁을 이루지 못 하였다. 명종 20년(1565) 4월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신료들이 강력하게 윤원형을 탄핵을 함으로서 명종은 그를 삭탈관직하여 시골로 내려보내고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려 했으나 명종도 2년후 세상을 떠나므로 그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명종 재위기간 22년간의 정치는 척신인 윤원형의 전횡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혼란하였는지는 그의 탄핵 내용⁴⁾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2) 『明宗實錄』 권6, 2년 9월 丁卯에 “宋麟壽, 李若水은 賜死하고, 李彥迪, 鄭磁는 極邊安置하고, 盧守愼, 丁熿, 柳希春, 金鸞祥은 絶島安置하고, 權應挺, 權應昌, 鄭惟沈, 李天啓, 權勿, 李湛, 林亨秀, 韓澍, 安景祐는 遠方付處하고, 權檣, 宋希奎, 白仁傑, 李彥忱, 閔起文, 黃博, 李震, 李洪男, 金振宗, 尹剛元, 趙璞, 安世亨, 尹忠元, 安稔은 付處하고자 한다.”는 교서를 발표하였다.

3)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동 편집부편. 성남: 동 연구소, 1991. 권17. 181. ‘柳希春’

4) 『明宗實錄』 권31, 20년 8월 丁卯.

한편 이러한 불안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야기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임격정의 난’이라고 하겠다. 이 난은 당시 황해도에서 권세가에 의한 겸병 확대와 시장권 확대로 인해 토지 및 상권에서 유리된 농민 및 소상인, 백정·천인 계층이 연합하여 지배층의 농장과 사유지의 확대 및 수탈에 대하여 명종 14년(1559)에 일어나서 동왕 17년(1562)에 끝이 난 농민항쟁인 것이다.

혹자는 임격정을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에 대한 백성들의 울분을 표출시킨 대표적 인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실록의 史臣이

“나라에 선정이 없으면 교화가 밝지 못하다. 재상이 멋대로 욕심을 채우고 수령이 백성을 학대해 살을 깎고 뼈를 발리면 고혈이 다 말라버린다. 수족을 둘 데가 없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饑寒이 절박해도 아침저녁 거리가 없어 잠시라도 목숨을 잇고자 해서 도둑이 되었다. 그들이 도둑된 것은 왕정의 잘못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다.”⁵⁾

라고 평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국내의 정치와 사회적 불안한 상황은 또한 外患으로 이어져 나타났는데 바로 乙卯倭變이다. 이 사건은 명종 10년(1555) 5월에 왜구가 선박 70여척으로 일시에 전라남도 남해안 쪽에 침입하여 약탈하고 계속하여 達梁浦로 침입해성을 포위하였으며, 또한 於蘭島, 장흥, 영암, 강진 등 일대를 횡행하면서 약탈과 노략질을 한 것이다. 조선조의 왜구의 침입은 적지 않았지만 이 왜변은 임란 이전의 가장 큰 규모의 왜란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와 외척들의 전횡으로 을사사화와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많은 선비들이 화를 입었으며, 을묘왜란과 같은 왜구의 침입이나 임격정의 난 등 내우 외란이 적지 않아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안하였던 시대로 학술문화에 대한 관심은

5) 『明宗實錄』 권27, 16년 10월 壬戌.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대의 서적문화와 관련된 도서 편찬과 간행이 활발하게 행해질 수 있는 여건으로서 정치적 상황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前王代의 圖書編撰과 刊行狀況

명종조의 서적문화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로 선왕대의 사정은 어떠하였는지 대략적으로 고찰해보고 그것이 명종대의 서적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직전의 선왕은 이복형인 인종이 되겠지만 재위하여 1년도 채 안되어 별세하였으므로 부왕인 中宗朝의 도서편찬 및 간행과 관련된 학술문화 사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에 반기를 들고 반정을 도모한 成希顔, 朴元宗, 柳順汀 등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 의해 즉위하였으므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였으나 연산군 시대의 폐정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광조 등의 신진사유를 중용하여 그들이 표방하려는 왕도정치를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趙光祖 등의 개혁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고 조급하게 서둘렀기에 반정공신인 훈구파에 반발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훈구파의 모함으로 중종 14년(1519)에 기묘사화를 일으켜 신진사류가 숙청되었다.

기묘사화 이후에도 집권층 사이에 정권을 둘러싸고 분열과 대립은 되풀이 되어 신사무옥이 일어나고 金安老의 파직, 柳世昌의 모역사건, 1527년 灼鼠의 변에 따른 敬嬪朴氏의 폐위, 김안로의 재등장 등으로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였으며, 중종 5년(1510)의 三浦倭亂, 동왕 19년(1524) 野人의 침입, 동왕 20년(1525) 倭寇의 침입 등이 잇달아 내우외란이 심하였던 시대이었다. 그러나 중종은 재위기간 중 경연을 통해 학문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선대의 폐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홍문관을 강화하고 문신의 사가독서를 실시하는 등 문흥을 진작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중종이 서적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수집과 간행에 역점을 두고 재위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은 다음의 기사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종 10년(1515) 11월 甲申일에 예조에 전지하기를

“서적은 治道가 담겨 있는 바요, 歷代에 중하게 여겨진 바이다. … (中略) 우리나라는 祖宗 이래 대대로 儒述을 숭상하여, 聖賢傳 및 史·子·集으로부터 빠지고 잃어버린 경서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다 수집하여 內府에 祕藏할 뿐더러 巷間에도 널리 반포하였었는데, 얼마 전에 나라의 운수가 중간에서 비색해져 맡아 지키는 일을 삼가지 않아서, 御府의 서적이 많이 없어지고 祕閣의 所藏도 완전한 서적이 거의 드무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몹시 애석하다. … (中略) 우리나라는 멀리 海外에 있기는 하나, 정성으로 구한다면, 서적이 예전 만큼 많아지지 못하리라고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祕府에 수장되지 않은 서적이 없고 士庶의 집에 반포되지 않은 서적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중국에 다녀오는 使臣으로 하여금 널리 서적을 구하여 오게 하거니와, 나라 안에서도 우리 땅이 좁다고는 하나 대대로 글을 숭상해 온 내력있는 집안에 또한 어찌 소장된 것이 없겠는가? 빠지고 잃어버린 경서 중에서 博問에 자료가 되고 治道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진 자가 아까워하지 않고 가져와서 바치면 내가 후하게 상주겠다. 이런 뜻으로 中外에 曉諭하라.”

위 내용에 나타나고 있듯이 중종은 재위기간 내 수차례 산일된 도서를 전국에서 구하거나 명나라에서 質來하도록 지시하여 많은 도서를 수집하였다. 그 중 주요한 사례를 적어보면, 중종 13년(1518) 11월에 金安國이 『語孟或問』, 『家禮儀節』, 『傳道粹言』, 『張子語錄』, 『經學理窟』, 『延平問答』, 『胡子知言』, 『古表精粹』 등을 무래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上進하였더니 중종을 매우 기뻐하며 술을 하사하였으며⁶⁾ 중종 36년(1541) 6월에는 명에서 무구할 책을 논의하여 書啓하도록 지시하여 金安國이 무구할 서적을 抄啓하였고, 다음해 그 목록에 의하여 무래한 후 간행할 책을 건의하였는데 이때도 중종은 쾌히 허락하며 술을 하사하였다.⁷⁾

당시 간행을 건의한 도서는 『春秋集解』, 『大明律讀法』, 『呂氏讀書記』, 『古文關鍵』, 『皇極經世書說』, 『易經集說』, 『止齋集』, 『象山集』, 『赤城論諫錄』, 『古文苑』, 『焦氏易林』, 『山海關志』, 『顏氏家訓』 등이다. 그 외에도 도서를 무래한 기사는 『中宗實錄』에 십 여 차례 나타나고 있다.

6) 『中宗實錄』 권34, 13년 11월 戊午.

7) 『中宗實錄』 권96, 36년 8월 庚辰. 권98, 37년 5월 丁亥.

이처럼 중종은 博問에 자료가 되고 治道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수집하는 한편 이를 널리 印頒하기 위하여 그간 사용하여 유실되고 닳아 진 것이 많았던 甲辰字나 甲寅字를 개주하여 인쇄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고, 唐本 資治通鑑의 字樣에 따라 새로이 銅자를 주조하라고 명하여 丙子字를 만들었다. 더욱 인쇄에 박차를 가하여 경서류를 비롯하여 예류, 역사류, 병서류, 의서류, 전기류, 자서류, 농가류, 문집류 등 다양한 서적을 인쇄하였다.

또한 중종조에 편찬된 주요 도서로는 「續三綱行實圖」, 「續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後續錄」과 같은 선대에서 편찬한 선본의 후속 편찬이 있었으며, 「四聲通解」, 「韻會玉篇」, 「訓蒙字會」와 같은 자서와 운서의 편찬과 「呂氏鄉約」, 「二倫行實」, 「農書」, 「蠶書」, 「辟瘟方」, 「瘡疹方」 등의 언해본이 편찬되었다.

이상으로 중종조의 도서편찬과 간행 상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중종조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내우외환이 컸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도서의 수집과 도서의 편찬 및 간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실적은 성종조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연산군조의 침체되었던 학술문화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만큼의 결실을 얻게 된 것은 호문 성품의 중종이 적극적으로 학문활동을 하면서 도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도서수집, 편찬 간행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서적문화의 발전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는 관련 사실로는 백운동서원을 설치하여 사학이 흥성할 기틀을 마련한 점과 서사를 설치하여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케 하자고 논의한 사실 등도 학술문화적으로 언급해야 할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여러 사정이 명종조의 서적문화의 배경으로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3. 明宗의 學問活動과 文興政策

3.1 明宗의 學問活動

명종은 중종과 셋째부인 문정왕후사이에서 1534년에 태어났다. 諱는 峴이고 字는 對陽이다. 인종의 뒤를 이어 1545년 7월에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된다. 즉위하기까지 대군으로서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 구체적인 수학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즉위하여 왕으로서의 군덕을 함양은 경연을 열고 신료들과 강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경연은 일찍이 왕이 공부하고 신료들과 시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역대 왕들은 그 실시한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경연의 참여실적과 그 운영 내용은 어느 정도 왕의 학문 성품과 학문 활동의 깊이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되므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명종대의 경연은 성종대의 朝講, 晝講, 夜講, 夜對에 召對를 더하여 三講과 二對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아마도 어린나이에 즉위하였기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군덕을 함양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신료들과 함께하여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한 경연의 필요성은 명종이 즉위한 1545년 7월에 영의정 윤인경 등이 올린 경계문 중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지금 전하께서 어리시긴 하지만 바로 정도로 함양하고 습관을 단정하게 할 때이니, 학문의 공력을 조금이라도 폐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질고 덕이 있는 선비를 정밀히 선택하여 강독을 권면하는 관원에 보충시키고 경연이 있을 뒤에도 상례에 구애됨이 없이 便殿에서 수시로 召對를 열어 담화도 하고, 經史를 강론하기도 하고, 민간의 고통을 묻기도 함으로써 情義가 서로 미더워지게 하셔야 합니다. 進講하는 관원도 범연히 몇 번 읽기만 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 읽게끔 하여 문장의 내용을 상세히 깨치어 알게 한다면, 학문만 진전할 뿐 아니라 사대부를 접하는 시간이 또한 많아져서 자연히 德性이 함양되고 聖學도 성취될 것입니다. 또 경연관으로 하여금 널리 古例 및 先儒의 格言을 상고하여 참 계달하게 하고는 이를 좌우에 진열하여 반성하는 자료로 갖추게 하소서”⁸⁾

8) 『明宗實錄』 권1, 즉위년 7월 乙酉.

라고 하여 문정왕후와 명종에게 경연이 군왕의 학덕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일임을 이해시키고자 하였으며, 며칠 후 좌의정 柳灌, 좌찬성 李彥迪 등이 왕이 어려서 선왕의 졸곡전이라도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경연을 열 것을 아뢰었더니 문정왕후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날 영의정 尹仁鏡 등이 經筵事目을 써서 아뢰었다.⁹⁾ 사목에는 경연 참석자와 강의 방식 등을 정해 놓았는데 내용 중 강의 방식을 보면, 朝講에는 進講官이 세 번 誦讀하고 두 번 해석하면 왕은 음독과 해석을 각각 두 번씩 하고, 講堂에는 왕이 앞서 공부한 것을 음독 한 번에 해석 한 번을 한 뒤에 進講官이 음독과 해석을 각각 두 번씩 하면 왕은 또 음독 네 번에 해석 한 번을 하도록 했다. 석강에는 進講官이 음독 세 번에 해석 두 번을 하고 나면 왕은 음독과 해석을 각각 두 번씩 하고, 내전에 들어가서는 음독 서른 번과 해석 열 번을 하도록 했다. 다음날 조강에는 왕이 앞서 공부한 것에 대해 음독과 해석을 각각 한 번씩 하고 나면 進講官이 전처럼 進講하며, 다음날 석강에도 왕이 앞서 공부한 것에 대해 음독과 해석을 각각 한 번씩 하고 나면 進講官이 전과 같이 進講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경연사목에 의해 처음으로 즉위년 8월 춘순당에서 경연이 실시되었다.

<표 1>은 연도별 실시한 경연일수와 회수를 조사하여 적은 것이다.

<표 1> 明宗의 經筵實施 日數 및 回數

재위년	즉위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경연일수	11	130	166	114	145	114	100	76	77	108	108	94
경연회수	14	191	247	219	259	180	151	127	121	190	165	150
재위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경연일수	94	82	47	54	36	29	22	5	6	12	8	1,638
경연회수	149	116	64	71	41	31	22	5	6	12	8	2,539

위 표에 의하면 재위 22년간 총 1,638일 경연을 열었고 그 총 실시회수는 2,539회였다. 연평균 74일에 115회를 개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위년에는 졸곡

9) 『明宗實錄』 권1, 즉위년 7월 庚寅.

전에 경연실시에 대해 찬반 논의도 있었고 명종의 신체허약 등의 이유로 개연한 횟수가 적었지만, 원년부터는 사간원에서 “임금이 환관과 궁첩을 가까이하는 날이 적고, 어진 사대부를 접견하는 시간이 많으면 덕성을 함양하고 기질을薰盜할 수 있는데 근래 전하께서 경연에 납시지 않으신지 오래이므로 아름다운 말과 바른 의논을 좌우에서 진달하지 못할까 우려 된다”는 간언을 드리고¹⁰⁾ 여러 대신들의 당부와 격려로 점차 경연을 자주 열게 되었다. 문정왕후가 섭정을 끝내는 명종 8년(1553)까지는 열심히 경연에 임하여 대신들은 흑한과 한 더위에는 경연을 잠시 휴강하라는 권유까지 하였으며, 섭정이 끝나고 나서도 동왕 13년(1558)까지는 연간 100회가 넘게 실시하여 꾸준히 경연을 통하여 신료들과 학문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점차 경연회수가 줄어 열의가 식어진 듯하여 이를 염려하고 獻納 金啓는 경연에서

“선비들을 가르치는 근본은 임금이 학문에 어떠한가에 달린 것입니다. 요즘 한 달 동안에 經筵에 나아가시는 날이 적으니, 講習하시는 방법이 허술한 듯합니다. 그러나 만일 경연만을 학문하는 데로 여기고 한가한 사이라 하여 학문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마치 하루 동안 별을 쪼이고 10일 동안 식히는 것과 같아서 학문하는 방법이 못되니, 한가로이 계실 적에도 중지하지 않으신 다음에야 聖學이 날로 고명해질 것입니다.”¹¹⁾

라고 하여 학문에 열의를 갖도록 진언하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경연에 임할 것을 청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나 날씨를 핑계로 개연되지 않아¹²⁾ 점차 줄어들었고 동왕 16년(1561)에 임격정의 난과 18년(1563)에 왕세자의 죽음이 있는 뒤에는 경연이 폐지될 정도였으므로 재위 후반 10년간은 경연을 통한 학문 활동은 매우 부진하였다.

다음 <표 2>는 경연의 유형별로 행한 회수를 연도별로 적어 본 것이다.

10) 『明宗實錄』 3권, 1년 2월 癸丑.

11) 『明宗實錄』 권24, 13년 9월 癸卯.

12) 『明宗實錄』 권27, 16년 10월 乙丑, 권32, 21년 1월 癸卯. 권34 22년 4월 癸卯.

<표 2> 經筵의 類型別 實施回數(年度別)

年度	朝講	晝講	夕講	夜對	召對	計
즉위년	3	8	1	2		14
원년	74	23	77	3	14	191
2년	116	15	78	10	28	247
3년	85	28	66	13	27	219
4년	104	32	95	10	18	259
5년	82	29	47	9	13	180
6년	66	30	35	8	12	151
7년	34	32	35	14	12	127
8년	33	32	37	7	12	121
9년	64	33	59	21	13	190
10년	31	33	36	35	30	165
11년	53	26	34	17	20	150
12년	44	36	32	18	19	149
13년	31	26	22	16	21	116
14년	19	19	13	1	12	64
15년	18	17	25	5	6	71
16년	10	9	8	1	13	41
17년	8	3	8	4	8	31
18년	9	1	7	0	5	22
19년	2	1	2			5
20년	2	2	2			6
21년	8		4			12
22년	4		4			8
계	900	435	727	194	283	2,539

명종은 재위기간 동안 총 2,539회에 걸쳐 개최한 경연을 3강 2대의 경연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강을 900회로 가장 많이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석강, 주장으로 낮에 공부하는 것을 피한 것 같다. 정례적인 경연의 실시가 많았지만 격의 없이 간소하게 행할 수 있었었던 소대, 야대도 적지 않게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명종이 경연에서 사용했던 교재로는 「小學」, 「孝經」, 「論語」, 「孟子」, 「書傳」, 「大學」, 「大學衍義」, 「中庸」, 「近思錄」, 「春秋胡傳」, 「禮記」, 「資治通

鑑綱目」, 「心性情理氣說」, 「太極圖說」로 밝히고 있으나¹³⁾ 이외에도 「訓辭」,¹⁴⁾ 「詩經」,¹⁵⁾ 「聖學格物通」¹⁶⁾ 등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으로 경연을 통한 명종의 학문활동은 전반적으로 보아 초기에는 문정왕후와 여러 대신들의 적극적인 독려로 학문에 임하였으나 점차 학문에 대한 열의가 떨어져서 재위 14년에는 급격히 경연 실시 회수가 줄어들면서 18년 이후에는 거의 경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덕과 군덕 함양을 위한 학문활동이 매우 저조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 논문¹⁷⁾에서 밝혔듯이 명종 자신의 신체적인 병약함과 경연관들의 실력과 태도에 있겠지만, 명종 자신의 성품이 호학적이지 못하므로 그러한 소극적인 학문활동을 보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종의 학문성향과 학문활동은 당대의 서적문화 발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明宗의 文興政策

국왕이 학문을 진작시키고 유생을 교육시켜 국가의 주요한 일을 담당해야 할 인재를 양성시키는 일은 국가 경영의 첫째 과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을 장려하는 것은 서적문화의 발전시키고 도서 편찬과 간행을 촉진시키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명종이 재위하면서 교육 발전에 관심

13) 金美玉, “朝鮮 明宗代의 經筵에 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39.

14) 『明宗實錄』 권4, 1년 7월 甲申條에 召對에서 侍講官 沈通源이 訓辭(世祖가 睿宗을 警戒한 내용)를 좌우에 두고 열람할 것을 청한 일이 있으므로 이를 받아 들여 경연에서도 공부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15) 『明宗實錄』 권3, 1년 4월 辛卯條에 朝講에서 명종이 진교하기를 “趙士秀가 『詩經』의 칠월편과 역편을 병풍에 써두고 관람하도록 아뢰기에 지금 內藏된 것을 살펴보니 칠월편을 쓴 병풍만 있고 역편을 쓴 병풍은 없다. 그것을 써서 병풍으로 만들어 들이라.”고 한 바 있어 추정할 것임.

16) 『明宗實錄』(9년 7월 30일) 진교하기를 “중국어에서 사온 서책 중에 『聖學格物通』은 『大學衍義補』의 예를 본받아 찬술한 것으로 진강할 만한 것이니, 校書局에 명하여 印出하라.”고 한 바 있어 인출하여 진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것임.

17)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明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49집(2011. 9), 104.

과 지원을 보인 학문진흥책에 대해 官學교육과 私學(書院)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2.1 官學教育의 振興

관학이라면 성균관과 사부학당 그리고 지방의 향교의 교육을 모두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성균관을 중심으로 그 교육 진흥책¹⁸⁾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명종조 초기의 관학 실태는 선왕대의 사화와 초기의 을사사화 등으로 인해선 지 유생들이 학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성균관에는 생원 진사 1, 2명에 불과할 정도로 텅 비어 있는 상태이고,¹⁹⁾ 사학은 빈 사원과 같다고 하였으며,²⁰⁾ 문신이 모자라 성균관의 관원인 전적이 6, 7명이 결원된 상태이었다.²¹⁾ 또한 사유의 관원도 가르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훈도 예조에도 힘쓰지 않았다.²²⁾ 이처럼 유생들이 학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가르칠 선생도 모자라 훈육이 원만하게 행하여질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점에 대하여 명종은 예조로 하여금 중앙과 지방의 권학 규칙에 대해 논의하여 진언토록 명하였으 며²³⁾ 그 결과 예조에서 서목을 올려 권장토록 하였는데²⁴⁾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관 중에 학행이 사표가 될 만한 자와 경학에 정통한 자가 있으면 각별히 선택하여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은 계품마다 1명씩, 4학의 겸교수 1명씩을 준례로 選人員에 참여시키고, 차출되면 모든 업무는 면제하고 오로지 가르치는 일만

18) 이 내용은 申解淳의 “中宗-明宗朝의 館學教育振興策,” 『史學研究』 59호(1999), 796-801. 을 참조하였다.

19) 『明宗實錄』 권2, 즉위년 12월 丁未, 戊申.

20) 『明宗實錄』 권5, 2년 1월 辛未.

21) 『明宗實錄』 권2, 즉위년 11월 己巳. 권3, 원년 3월 庚午.

22) 『明宗實錄』 권3, 원년 3월 己巳.

23) 『明宗實錄』 권3, 원년 2월 丁巳.

24) 『明宗實錄』 권3, 원년 6월 辛丑.

맡기고, 현저하게 양성한 공이 있는 자는 특별히 資品을 올려 褒獎하여 나머지 사람을 권면한다.

둘째, 유생의 독서하는 일수를 「大學」은 1朔, 「中庸」 2朔, 「論語」, 「孟子」는 각각 4朔, 「詩經」, 「書經」, 「春秋」는 각 6朔, 「周易」, 「禮記」는 각 7朔으로 한정하고 通讀하거나 分訓하면 책마다 始讀과 畢讀을 이름 밑에 기록한다. 매월 초순에 예조와 성균관 당상이 함께 모여 강경을 고시하여 通·略·粗·不을 기록하고 식년마다 초여름에 四書 중 1經 이상의 점수를 통계하여 우등 5명은 會試에 直赴케 한다.

셋째, 寄齋 및 사학 유생은 매월 초순에 中學에 모여 禮曹郎廳, 成均館長官, 4학관원 각 1명과 輪差官이 사서를 고강하고 점수를 통계하여 우등 10명은 생원, 진사시에 直赴케 한다는 등의 관학 유생들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한 학습내용과 방법 및 성적평가와 상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종초부터 관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훈구계열이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고식적이고 형식적 말단적 대책에 불과한 것이기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²⁵⁾ 관학의 진흥을 위한 논의와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명종 9년(1554) 2월에 명종은 관학의 사장이 교회에 힘쓰지 않았기에 임무에 부지런하도록 하는 한편 師儒 합당자를 가려 뽑도록 진교한 바 있으며, 영의정 심연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옛 제도를 신명하여 절목을 자세히 갖추어 학교교육을 진흥시키도록 예조에 명한 일이 있었으나²⁶⁾ 관학의 침체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사유직의 과행적 인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성균관의 직책을 가볍게 여겨서 합당자를 가리지 않고 구차하게 사유의 자리만 메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그때마다 글을 잘하고 명망이 중한 자나 경술이 있는 자, 대간을 지낸 자 등과 같이 서유 합당자를 관학 관원에 선임

25) 申解淳, “中宗-明宗朝의 館學教育振興策,” 『史學研究』 59호(1999), 797.

26) 『明宗實錄』 권22, 12년 1월 庚辰.

토록 하고 오래 맡겨야 한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잦았던 것이다.

이처럼 사유직에 비적격자가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역시 인재가 모자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명종 즉위년 을사사화로 증중조 말기에 배출한 사림계 출신 인재들 가운데 상당수가 처형되거나 조정에서 축출되고 관학 교육이 온전치 못하여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종은 이러한 문흥책 이외에도 試取를 통해 유생들의 학업을 권장하려 하였다. 재위기간 별시를 포함하여 문과가 23회나 실시하여 연평균 1회 정도로 자주 시행하였지만 유생들의 학업을 권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요행을 바라는 마음만 갖게 하는 폐단만을 자아냈다고 하거나, 선비들의 독서는 글귀나 읽고 음이나 해석할 뿐이고 제술은 표절이나 하면서 남의 글을 뽑아 모으거나 할 뿐이라고 비판이 있었으니²⁷⁾ 그 성과는 기대 이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명종조의 관학 교육의 진흥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사관들은 사론에서 왕이 평소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왕 한명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는 당시의 임금을 보필하였던 대신들의 잘못도 있었음을 지적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록 관학의 진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계속적으로 명종이 학문 진흥에 관심을 갖고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3.2.2 私學(書院)教育의 振興

서원은 주지하는바 중종 38년(1543)에 周世鵬이 세운 白雲洞書院이 최초이다. 서원이란 종래의 사학인 齋만 갖춘 서당과는 달리 祠와 齋를 갖춘 새로운 모습의 사학이었다. 이처럼 중종 말기에 세워진 서원은 명종조에 들어와서도 계

27) 『明宗實錄』 권30, 19년 2월 己巳.

속 설립 되어 가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명종 4년(1549) 황해도 海州에 文憲書院과 충청도 報恩에 象賢書院의 설립이었다. 이후 서원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退溪 李滉에 의해서이다.

퇴계는 명종 3년(1548)에 풍기 군수로 부임하여 기존의 백운동서원을 사림의 講學과 藏修를 위한 교학의 터로 성격지우고, 다음해 영남감사 沈通源을 통해 명종에게 賜額書院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紹修書院으로 사액되고 서적과 학진, 노비를 하사함으로써 왕이 인정하는 최초의 서원이 되었다.

그 후에 소수서원은 명종 7년(1552) 3월 28일 경연에서 說經 安璿가

“경상도 풍기군에 소수서원은 도내의 유생들이 모두 모여들어 마치 朱文公의 白鹿 洞과 같습니다. 그런데 뜻 있는 선비들이 제반 서책을 박탈하고자 하나 궁벽한 시골이라 서책이 귀하여 선비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책을 간행할 때 한 질씩 頒賜하소서.”²⁸⁾

라고 한 것처럼 관학의 학생이 없는 것과는 달리 많은 학생이 모여 들고 있어 사학교육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종은 필요한 도서를 계속 지원하도록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명종 10년(1555)에는 首陽書院에 편액과 서적을 臨臯書院의 예대로 내리라고 전교한 바가 있어²⁹⁾ 이미 임고 서원에도 소수서원과 같이 사액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퇴계의 청액 활동과 이를 받아들여 사액과 서적, 학진, 노비를 지원한 명종의 진흥책은 향후 서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명종 년간에 서원은 계속적으로 전국에 설립되어 사학의 발전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 <표 3>은 명종년간에 설립된 서원을 설립연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28) 『明宗實錄』 권13, 7년 3월 庚戌.

29) 『明宗實錄』 권18, 10년 2월 庚寅.

<표 3> 明宗朝에 설치된 書院

設立年	名稱	所在地	配享者	賜額年
明宗4年	文憲書院	黃海 海州	崔沖, 崔惟善	明宗5年
明宗4年	象賢書院	忠清 報恩	金淨, 成運, 成悌元, 趙憲, 宋時烈	光海君2年
明宗5年	首陽書院	黃海 海州	崔沖	明宗10年
明宗7年	藍溪書院	慶尙 咸陽	鄭汝昌, 兪好仁, 姜翼, 鄭蘊	明宗21年
明宗10年	臨臯書院	慶尙 永川	鄭夢周, 皇甫仁, 張顯光	明宗10年
明宗11年	五峰書院	江原 江陵	孔子	
明宗11年	水溪書院	慶尙 襄城	金安國, 李彥迪, 柳成龍, 金誠一, 張顯光	宣祖9年
明宗16年	西岳書院	慶尙 慶州	薛聰, 金庾信, 崔致遠	仁祖1年
明宗18年	文會書院	咸鏡 咸興	孔子	宣祖9年
明宗18年	三江書院	慶尙 密陽	閔九齡, 閔九韶, 閔九疇, 閔九敍	
明宗19年	仁賢書院	平安 平壤	箕子	光海君即位年
明宗19年	研經書院	慶尙 大邱	李滉, 鄭述, 鄭經世	顯宗1年
明宗19年	雪峰書院	京畿 利川	徐熙, 李寬義, 金安國	
明宗19年	玉川書院	全羅 順天	金宏弼	宣祖1年
明宗19年	清溪書院	慶尙 草溪	李希顏, 全治遠, 李大期	
明宗22年	玉洞書院	咸鏡 安邊	李繼孫, 金尙容, 趙錫胤	肅宗28年
明宗22年	禮林書院	慶尙 密陽	金宗直, 朴漢柱, 申季誠	顯宗10年
明宗年間	清涼書院	平安 中和		

명종 22년간의 서원의 설립은 <표 3>에 있는 바처럼 총 18개소로 조사되었다. 참고한 문헌³⁰⁾에는 수양서원이 없으나 명종실록에 나타나 있는 기사³¹⁾를 참고하여 포함시켰다. 선행논문³²⁾에는 명종 8년(1553) 浦項에 三明書院과 명종 10년(1555) 永川에 白鶴書院이 설립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참고한 문헌에 보이지 않았고 配享者가 전자는 李訥 후자는 李滉으로 되어 있어 포함을 유보시켰다.³³⁾

30) 이 서원들은 『增補文獻備考』 ‘學校考’와 『李朝書院文庫考』(李春熙 著)에 수록된 “書院 및 祀宇地方別分布表”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서원에다 首陽書院과 清涼書院을 추가하였다.

31) 『明宗實錄』 권18, 10년 2월 庚寅.에서 수양서원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문헌에서 거명인 안 되고 있어 문헌서원과 동일한 것이 아니가 하는 의문으로 조사해 보았으나 확인을 못했다. 후일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32) 方承熙, “朝鮮中期 嶺南·畿湖地域의 書院,”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원 교육대학원, 2002), 17.

33) 研經書院도 配享者가 李滉으로 같은 경우이나 『增補文獻備考』에 명종조에 설립된 것으로

두 분이 명종대에 생존한 인물이라 배향자로 모셨다면 사후 즉 명종조 이후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종조에 平安 中和에 있는 청량서원에서 도서간행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있어³⁴⁾ 당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포함시켰으나 설치연도나 향사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명종조에 설치된 서원을 도별로 구분하여 그 설립된 수를 보면, 우선 경상도가 8개 서원으로 가장 많고,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가 각각 2개 서원이 설립되었거나 나머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가 각각 1개의 서원이 설립되어 전국 8도에 서원 보급이 확산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서원중 명종조에 사액서원으로 정해진 서원은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문헌서원, 임고서원, 수양서원, 남계서원 등이며 나머지 서원들도 대부분이 후대에 사액서원으로 지정이 되었다.

명종이 사액서원에 하사한 도서로는 「四書」, 「五經」, 「性理大全」, 「綱目」, 「續綱目」, 「少微通鑑」, 「通鑑續編」, 「事文類聚」 등을 확인하였으나 더 많은 도서가 하사되었을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서원은 하사된 도서 이외에 기증을 받거나 구입 또는 직접 간행을 하여 장서를 확보하여 활용하였는데, 위 서원 중 목판본을 간행한 서원은 청량서원이외에도 상현서원, 서악서원, 예림서원, 옥천서원 등에서 비록 당대는 아니지만 도서간행이 이루어졌음을 「鏤板考」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명종조 초기에 설립된 서원들은 대부분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다른 서원 설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인쇄술 발달에도 일조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실의 첫 번째 공로는 주세붕에게 그리고 이항에게 돌려야겠지만, 사액서원의 청을 들어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명종의 공로도 당연히 높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타나 있어 포함시켰다. 이 점도 후일 확인할 일이다.

34)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민음사, 1997), 223.

金致雨, “朝鮮朝 前期地方刊本の 研究,”(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234-239.

4. 明宗朝의 圖書編撰 및 刊行

명종조의 서적문화와 관련하여 당대의 정치적 상황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을사사화 양재역 벽서사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하였고, 그러한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을묘왜변이나 임격정의 난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찾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명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학덕을 쌓기 위한 경연 활동에 관심을 보였으나 점차 열의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호학적인 성품은 아닌 듯하며 학문 진흥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크게 효과를 얻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서적 문화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여건이라 크게 기대는 하기 어려우나, 재위 기간에 실제 어느 정도 도서편찬과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4.1 圖書의 編撰

명종조의 도서의 편찬 내용을 실록의 기사를 참고하여 연도별로 정리하여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명종 원년(1546)에 尹潔은 朴孫이 표류하다 琉球國에 머물러 지냈던 이야기를 듣고 『琉球國風俗記』를 찬하였고, 柳大容은 『琉球風土記』를 편하였다.³⁵⁾ 유국국은 당시 조선과 교류했던 동중국해 남동부 즉 지금에 일본 오키나와 현에 있었던 왕국이다. 동년 11월에는 홍문관을 통하여 『心學圖說』 및 『大學圖說』을 찬진한 바 있는데³⁶⁾ 이 책은 어린 왕이 심학과 대학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해하여 올린 것으로 짐작된다.

명종 2년(1547) 4월에는 尹齡이 『國朝寶鑑類抄』 2권을 편하여 올린바 있는데,³⁷⁾ 이것은 祖宗의 謨訓으로 만세에 끼쳐질 만한 법들을 가려 모아, 유별로

35) 『明宗實錄』 권3, 원년 2월 戊子.

36) 『明宗實錄』 권4, 원년 11월 癸亥.

편집하고 조목별로 엮어 편찬을 만들고서는 상하 두 권으로 묶어 題名을 붙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역시 왕으로 하여금 가능한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국조보감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것으로 보여 진다. 동년 11월에는 『續武政寶鑑』을 편찬케 하였던 바 그 찬수청을 병조에 설치하고 기존의 『武政寶鑑』에 수록되지 않은 성종조부터 명종조 초까지 발생한 모든 내우외환을 진압한 전말을 수록하여 명종3년(1548) 10월에 완성을 보았다.³⁸⁾

명종5년(1550) 10월에는 『中宗實錄』과 『仁宗實錄』이 찬수되어 내사각에 봉안하고 충주 성주 전주사각에 봉안하였다.³⁹⁾

명종9년 11월에는 『救荒撮要』를 抄하고 諺字로 번역하여 중외에 널리 읽도록 배포한 바 있는데, 이것은 당시 영호남에 기근이 극심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초하여 진휼청에서 편찬한 것이다.⁴⁰⁾

명종10년(1555) 1월에는 왕명으로 安瑋 등이 찬한 『經國大典諺解』가 완성되었다.⁴¹⁾ 이것은 조선의 대표적 법전인 경국대전에서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를 주해한 것이다.

명종15년(1560) 8월에는 예조에서 을묘년(1555)부터 기미년(1559)까지 호녀 열녀에 대해 집성하라는 전교를 받았으므로 책을 만들어 입제한다고 하였으니⁴²⁾ 호녀 열녀전이 편찬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명종 21년(1566) 9월에 李彥迪이 찬한 『進修八規』를 아들 李全仁이 왕에게 올린 기사⁴³⁾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진수판규는 명종 2년에서 5년사이에 저술한 것으로 국왕이 덕을 쌓는데 필요한 8개의 항목을 적고 말미에는 왕에게 올리는 상소가 첨가되어 있다. 찬자인 이언적이 기초해 놓고 올릴 기회없이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죽은 후 아들이 이때 올린 것이다.

37) 『明宗實錄』 권5, 2년 6월 壬寅.

38) 『明宗實錄』 권6, 2년 11월 丁亥. 3년, 10월 丁巳, 庚午, 11월 丁丑.

39) 『明宗實錄』 권10, 5년 10월 己巳, 庚午.

40) 『明宗實錄』 권17, 9년11월 壬戌.

41) 『明宗實錄』 권21, 11년 6월 丁未, 同 8월 甲午, 辛亥.

42) 『明宗實錄』 권26, 15년 8월 癸卯.

43) 『明宗實錄』 권33, 21년 9월 辛卯.

이상과 같이 명종조에 편찬된 도서로 확인된 것은 10여종 밖에 안 되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대의 정치가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과는 물론 왕의 소극적인 학술활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찬된 도서 중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 언해한 『救荒撮要』와 『傾國大典諺解』에 다소 편찬의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그 외 명종의 시와 문장을 좋아하는 학문 성품과 관련된 사항으로 명종 17년(1562) 5월 全州·慶州地圖를 내려 鄭惟吉 등에게 序 및 七言長篇을 짓게 하거나, 44) 科擧圖를 나누어주고 七言律詩를 짓도록 한 일⁴⁵⁾ 등 자주 신료들에게 시를 짓도록 하였음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한편 도서편찬과 관련하여 명종조의 도서 수집한 사례를 사신을 통해 들어온 도서와 무역을 통해 입수된 도서를 조사해 보았으나 중종조와 달리 그 실적이 많지 않았다. 실록에 나타난 것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신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는 명종 1년(1546) 4월 進賀使 일행으로 다녀온 尹溪가 『明太祖高皇帝文集』을 가져와 왕에게 올렸으며⁴⁶⁾, 명종 7년(1552) 10월에 韓山斗가 『皇明祖訓』을 바치었다는 기사⁴⁷⁾가 보이고 있을 뿐이다. 質來하여 수집된 도서로는 명종 2년(1547)에 『綱目前編』과 『續綱目發明廣義』, 『武經總要』가 있으며,⁴⁸⁾ 명종 6년(1551)에는 『異端辨正』⁴⁹⁾을 명종 9년(1554)에는 『聖學格物通』을 수집하였고, 동년 7월에 예조에서 역사서를 무래할 계획을 아뢰어 허락을 받았으므로⁵⁰⁾ 다소의 역사서가 무래 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수집 도서수가 매우 적었음은 명종을 비롯하여 중신들의 도서 수집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중종조보다는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4) 『明宗實錄』 권28, 17년 5월 戊戌.

45) 『明宗實錄』 권30, 19년 6월 辛巳.

46) 『明宗實錄』 권3, 1년 4월 乙巳.

47) 『明宗實錄』 권13, 10월 乙卯.

48) 『明宗實錄』 권5, 2년 4월 乙酉.

49) 『明宗實錄』 권11, 6년 3월 甲辰, 乙卯.

50) 『明宗實錄』 권17, 9월 7월 戊辰. 권17, 9년 7월 庚戌.

4.2 圖書의 刊行

명종조에 간행된 도서를 실록의 기사를 비롯하여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中央刊本과 地方刊本 그리고 寺刹刊本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4.2.1 中央刊本

명종이 즉위한 해에 처음 인쇄 된 것은 7월 李彥迪이 건의하여 간행하게 된 『小學諺解』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이 『소학언해』는 이미 중종조에 인쇄 배포하기로 했으나 己卯土禍로 인하여 중단된 것이 이때에 완료된 것이다.

명종 2년(1547)에는 4월 명에서 貿來한 『綱目前編』과 『續綱目發明廣義』 및 『武經總要』를 인쇄하라는 명에 의하여 간행되었으며, 7월에는 朴詠이 쓴 三十三體篆字『中庸』을 인쇄케 하였다.⁵²⁾ 또한 10월에는 『續武定寶鑑』을 인쇄 광포할 것을 청하여 그 간행사업이 시작되어 일년 후 동왕 3년(1548) 10월에 전국에 인반되었다.⁵³⁾

명종 5년(1550) 11월에는 『黃疸瘡疾治療方』을 각도·주·부·군·현 등에 인반하고 다시 인쇄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⁵⁴⁾

명종 6년(1551)에는 5월 安玳이 조강에서 兵書를 인반하여 武人들이 볼 수 있도록 청한 기사⁵⁵⁾가 보이는데 그 병서의 서명이나 결과를 확인 할 수가 없다.

명종 9년(1554)에는 3월에 三綱行實을 다수 인반토록 하였고,⁵⁶⁾ 7월에는 명에서 들어온 聖學格物通을 인쇄케 하였으며,⁵⁷⁾ 11월에 救荒撮要를 諺字로 번역하여 중외에 인쇄토록 하였다.⁵⁸⁾

51) 『明宗實錄』 권1, 즉위년 7월 辛巳.

52) 『明宗實錄』 권5, 2년 4월 을유. 권6, 2년 7월 戊辰.

53) 『明宗實錄』 권8, 3년 10월 丁巳, 庚午.

54) 『明宗實錄』 권10, 5년 11월 己亥.

55) 『明宗實錄』 권11, 6년 5월 丙午.

56) 『明宗實錄』 권16, 9년 3월 丙辰.

57) 『明宗實錄』 권17, 9년 7월 戊辰.

朝鮮朝 明宗의 學術活動과 書籍文化에 관한 考察

명종 13년(1558)에는 4월에는 「大典元典」, 「續典」, 「續集」 등을 인출하여 문무루 및 법사에 소장토록 하였다.⁵⁹⁾

이상 실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앙에서 도서를 간행한 관련된 기사는 20여건 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현전하고 있는 도서의 內賜記를 통해 명종조의 중앙간본으로 반사되었던 도서를 추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明宗朝의 內賜本⁶⁰⁾

刊行(內賜)年	書名	撰者	板種	所藏處	
明宗元年 (1546)	皇華集	明宗 命編	甲寅字混入補字版	玉山書院	
	御製文集	太祖(明) 御撰	甲寅字混入補字版		
明宗4年 (1549)	桂洲奏議	夏言(明) 撰	甲辰字多混補字版	日 蓬左文庫	
	讀杜詩愚得	單復(明) 撰	乙亥字多混補字版		
明宗6年 (1551)	異端辯正	詹陵(明) 撰	乙亥字混入補字版		
明宗7年 (1552)	大明會典	李東陽(明) 著	丙子字乙亥字並印版		
	國朝五禮儀	申叔舟 等奉命撰	乙亥字混入補字版		
明宗8年 (1553)	天原發揮	鮑雲龍(宋) 撰	乙亥字版		
	選詩	蕭統(梁) 選	甲寅字混入補字版		
	春秋胡氏傳集解	胡安國(宋) 傳	乙亥字版		國立中央圖書館
明宗10年 (1555)	文章辨體	吳訥(明) 編	甲辰字版		日 蓬左文庫
明宗11年 (1556)	唐音	楊士弘(元) 編	乙亥字版		日宮內廳書陵部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眞德秀(宋) 撰	甲辰字乙亥字並印版	日 蓬左文庫	
明宗13年 (1558)	十一家註孫子	孫武(周) 撰	丙子字版	日宮內廳書陵部	
	文獻通考	馬端臨(元) 撰	甲辰字版	誠庵古書博物館	
明宗15年 (1560)	通典	杜佑(唐) 撰	乙亥字混入補字版	日 蓬左文庫	
明宗19年 (1564)	大明一統志	李賢(明) 等受命編	乙亥字版	陶山書院	
明宗年間	聖訓演	太祖(明) 撰	甲辰字多混補字版	日 蓬左文庫	

58) 「明宗實錄」 권17, 9년 11월 壬戌.

59) 「明宗實錄」 권24, 13년 4월 己亥.

60) 이 목록은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千惠鳳 著)와 「韓國書誌年表」(尹炳泰 編), 「韓國古典籍宗合目錄」(國立中央圖書館 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상 확인한 내사본은 18종이 되는데 대부분이 선왕때 만들어진 갑인자, 을해자, 갑진자, 을해자와 그 補字를 사용한 활자본이 대부분이었으며 당대에 주조된 병자자판은 1종만이 확인 되었다. 주제⁶¹⁾는 집부(총집류 5종, 별집류 2종)가 7종으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이 내사본을 포함하여 앞에서 실록 기사로 밝힌 중앙간본들은 대부분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전국에 반사함으로서 지방의 인쇄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4.2.2 地方刊本

지방에서 간행한 목판본들을 여러 문헌⁶²⁾을 참고하여 정리해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書名	編著者	刊行地	刊行年
性理大全節要	金正國(朝鮮) 著	淸道	明宗 1년(1546)
殿策精粹		慶州	明宗 2년(1547)
入學圖說	權近(朝鮮) 撰	榮川郡	明宗 2년(1547)
脉訣理玄秘要	劉開(宋)撰 王和鼎編輯	洪州牧	明宗 3년(1548)
古文軌範	謝紉得(宋) 編	杆城郡	明宗 4년(1549)
二倫行實圖	金正國 著	海營	明宗 5년(1550)
懼仙活人心法	朱權(明) 編	慶州府	明宗 5년(1550)
文選	蕭統(梁) 選 ; 李善(唐) 注	完營	明宗 8년(1553)
喪禮抄錄		星州	明宗 8년(1553)
北溪先生性理字義	陳淳(宋) 著	晉州	明宗 8년(1553)
文公先生感興詩	朱熹(宋) 撰 ; 蔡模(明) 註	淸州牧	明宗 8년(1553)

- 61) 經部(春秋類) : 『春秋胡氏傳集解』,
 史部(詔令奏議類) : 『桂洲奏議』, (政書類) : 『大明會典』, 『國朝五禮儀』, 『文獻通考』, 『通典』,
 (地理類) : 『大明一統志』,
 子部(儒家類) : 『異端辯正』, 『聖訓演』, (兵家類) : 『十一家註孫子』, (術數類) : 『天原發揮』,
 集部(總集類) : 『皇華集』, 『選詩』, 『文章辨體』, 『唐音』,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別集類) : 『讀杜詩愚得』, 『御製文集』
- 62)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千惠鳳 著), 『韓國書誌年表』(尹炳泰 編), 『韓國古典籍宗合目錄』(國立中央圖書館 編), 『朝鮮朝 前期地方刊本の 研究』(金致雨 著) 등

朝鮮朝 明宗의 學術活動과 書籍文化에 관한 考察

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	朱熹(宋) 編 : 周木(明)校正	清州牧	明宗 9년(1554)
文公家禮儀節	朱熹(宋) 撰 : 丘濬(明) 輯	清州牧	明宗 10년(1555)
宋鑑節要	李讜 編	平壤	明宗 10년(1555)
古今歷代十九史略通攷	曾先之(元)	潭陽府	明宗 13년(1558)
治腫秘方	任彥國(朝鮮) 撰	錦山郡	明宗 14년(1559)
朱子經筵講義	朱熹(宋)撰 : 宋純(朝鮮) 編	全州府	明宗 14년(1559)
眞西山經筵講義	眞德秀(宋) 著	全州府	明宗 14년(1559)
救急良方		錦山郡	明宗 14년(1559)
易學啓蒙要解	世祖(朝鮮) 命編	寧邊府	明宗 15년(1560)
心經附註	眞德秀(宋) 纂	肅川府	明宗 15년(1560)
醫閭先生集	賀欽(明) 著	晋州牧	明宗 16년(1561)
東槎集	蘇世讓 等著	玉川	明宗 17년(1562)
月印釋譜	世祖(朝鮮)命編	淳昌	明宗 17년(1562)
皇明理學名臣言行錄	楊廉(明) 纂集	慶州府	明宗 17년(1562)
學庸章句指南	胡謐(明) 編	慶州府	明宗 17년(1562)
東國輿地勝覽	盧思愼 等編	會寧都護府	明宗 17년(1562)
東萊先生音註唐鑑	范祖禹(宋) 撰 : 呂祖謙 註	慶州府	明宗 17년(1562)
家禮大全	朱熹(宋) 著	南原谷城縣	明宗 18년(1563)
程氏遺書分類	楊廉(明) [編]	順天府	明宗 19년(1564)
濂洛風雅	金履祥(元) 記錄 : 唐良瑞(元) 編類	順天府	明宗 20년(1565)
景賢錄	李楨(朝鮮) 編	順天府	明宗 20년(1565)
東坡詩選	蘇軾(宋) 著	寧邊府	明宗 20년(1565)
三韓詩龜鑑	趙玄禧(高麗) 精選 : 崔瀼(高麗) 批點	順天府	明宗 21년(1566)
延平李先生師弟答問	朱熹(宋) 編 : 周木(明) 校正	順天府	明宗 21년(1566)
延平答問補錄	周木(明) 編	順天府	明宗 21년(1566)
心經附註(李滉 後論附)	眞德秀(宋) 撰	文川郡	明宗 21년(1566)
新增圖像小學日記故事大全	虞詡(明)纂	錦溪	明宗 21년(1566)
近思錄集解	朱熹(宋), 呂祖謙(宋) 共著	中和郡	明宗 21년(1566)
竹溪志	周世鵬 撰	豊基	明宗年間 (1545-1567)

명종조에 지방에서 간행된 도서를 연대별로 열거해 보았다. 비록 그 당시에 간행된 것을 완전하게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밝혀진 위의 도서만을 가지고도 대략적인 지방의 출판문화 사정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위에 조사된 책수는 전체 40책인데 그 중 전라도 14책, 경상도 11책, 충청도 6책, 평안도 5책, 함경도 2책, 강원도 1책, 황해도 1책으로 전라도 지방이 가장 많은 출판량을 보이고 다음 경상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순이다. 다만 8도 중 경기도에서 출판된 것은 한 책도 밝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점은 도서관행이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고 보기보다는 본인의 조사가 미흡했거나 일실되어 전하지 않아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2.3 寺刹本

명종조에 사찰에서 간행된 도서를 사찰별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⁶³⁾

道別	寺刹名	刊行圖書
黃海道	石頭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46) 地裝菩薩本願經(155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59)
	歸進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46) 妙法蓮華經(1554) 金剛般若波羅密經(1557) 龍龕手鑑(1563)
	深源寺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1553)
	星宿寺	高麗大藏都監版十地經論(1557) 大佛頂首楞嚴經(1559)
	靑奄寺	法寶壇經(1558)
	烟峯寺	妙法蓮華經(1559)
	大山中菴	地裝菩薩本願經(1562) 현수제승법수(1566)
	俱衆寺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562)
慶尙道	喩葉寺	妙法蓮華經(1564) 金剛般若波羅密經(1564)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1564)
	神興寺	天地八陽神呪經(1549) 禪門頌集(1549)
	哲菴	五大眞言(1550) 靈驗略抄(1550)
	叱方寺	妙法蓮華經(1561)
	廣興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2)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562)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63)
	普門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3)

63) 사찰본 목록도 상계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全羅道	雙溪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47) 妙法蓮華經諺解(1547) 佛說阿彌陀經(1558)
	天冠寺	妙法蓮華經(1561)
	雙峰寺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62) 妙法蓮華經(1562)
	松廣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3)
	無量寺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顯正記(1565)
平安道	解脫菴	佛頂心陀羅尼經(1561)
	深谷寺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61)
	安國寺	蒙山和尚六道普說(1566)
	靈泉寺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566)
江原道	表訓寺	妙法蓮華經(1545)
	楡岾寺	禪院諸詮集都序(1553)
	佛曾菴	蒙山和尚六道普說(1565)
忠淸道	普願寺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65) 妙法蓮華經(1565)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66)
	雙溪寺(恩津)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7)
咸鏡道	釋王寺	佛說大目連經(1546)
	道成菴	禪宗永嘉集(1552)
京畿道	華藏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1553)

위의 간행된 불서보다는 실제 간행한 불서의 수는 더 많겠지만 확인된 것만으로도 사찰의 간행사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점은 어느 왕대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불서 간행이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가 각별히 불교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 다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불서를 도별로 간행 상황을 살펴보면, 황해도 지역에서 9개 사찰이 18책을 경상도는 5개 사찰이 9책, 전라도는 5개 사찰이 8책, 평안도 충청도 지역의 사찰이 각각 4책, 강원도와 지역의 사찰이 3책, 함경도 지역의 사찰이 2책, 경기도 지역의 사찰이 1책을 간행한 것으로 나타나 당대의 황해도 지역 내의 사찰들이 불서를 가장 많이 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본 지방 간본의 도별 간행 도서수가 전라도 경상도 순이고 황해도가 가장 적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점이다. 간행된 불서의 종수는 29종이 되며 그 중 7종은 2회 이상 간행되었다. 가장 많이 간행된 불서는 『妙法蓮華經』과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7회나 간행되었다.

이상으로 도서 간행은 편찬도서와는 달리 중종조의 활자 주조와 개조 및 활발했던 인쇄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인 도서 간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의 도서 간행과 사찰에서 불서의 간행이 많았다. 아마도 도서 편찬보다는 도서 간행이 정치적 영향이나 왕의 호문적인 성품 및 학문활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5. 結 言

조선 명종조의 서적문화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중종조의 도서 편찬과 간행 상황을 살펴보고, 명종의 학문활동과 문흥정책은 어떠한지를 밝혀 그것이 서적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로 도서 편찬과 간행실적은 어느 정도이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보면 같다.

첫째, 명종조의 서적 문화의 배경으로서 정치사회적 상황은 乙巳士禍와 良才驛壁書事件으로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하였고, 林巨正의 亂, 乙卯倭變 등 내우외환이 심했으므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둘째, 명종은 12살에 즉위하여 초기에는 주변의 많은 성원과 격려로 경연을 통해 군덕함양에 열성을 보였으나, 재위 기간 중반 이후에는 열의가 없어지면서 경연의 참여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학문적 성향은 시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호학적인 성품을 지닌 왕은 못되었다. 따라서 왕의 학문성향과 활동은 당대의 서적 문화 발전을 주도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셋째, 명종은 당대에 문흥을 위하여 관학교육의 진흥을 위해 教誨節目을 마련하고 시행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과거를 자주 실시하여 면학을 권장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학의 경우 중종조에 시작된 서원을 이황의 건의를 받아들여 賜額書院화 함으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8개의 서원이 설립되었고 사학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넷째, 당대의 도서 편찬은 전조에 비하여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저조하였는데, 이점은 불안한 정치 사회적 상황과 왕의 비호학적 성품 및 학술활동이 소극적이었던 점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다섯째, 도서의 간행사업은 신활자를 주조하고 구활자를 개조하여 인쇄사업을 활성화하였던 중종조의 영향을 받아 활발하게 행하여졌으며, 특히 지방의 도서간행과 사찰에서 불서간행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점은 서원의 설립과 文定王后가 불교를 지원한 일과 다소 관련성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참고문헌>

-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1.
- 金美玉. “朝鮮 明宗代의 經筵에 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高麗大學校教育大學院. 1995.
- 金致雨. “朝鮮朝 前期地方刊本の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8.
-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明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49집(2011. 9). 77-105.
- 方承熙. “朝鮮 中期 嶺南·畿湖地域의 書院.”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申解淳. “中宗-明宗朝의 館學教育振興策.” 『史學研究』 59호(1999). 773-804.
-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 李春熙. 『李朝書院文庫考』. 서울: 국회도서관, 1969.
- 朝鮮王朝實錄, 明宗實錄.

書誌學研究 第51輯(2012. 6)

朝鮮王朝實錄, 中宗實錄.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2006.

千惠鳳.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